

솔로몬, 성전 봉헌

핵심 구절: "제사장들은 여호와와 영광스러운
임재가 성전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여호와와 성전에
들어갈 수 없었다."

역대하 7:2

선택한 성구:

역대하 7:1-7,11

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예수님과 그의 "작은 무리"로 이루어진, 하나님께서 현재 복음 시대에 건축하고 계신 더 크고 영적인 성전을 예시한 것입니다. (눅 12:32). 바울은 "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."라고 말합니다. (고린도전서 3:16,17, 12:27). 우리 주

예수님은 이 하늘 성전의 "기초"이십니다(고린도전서 3:11).

솔로몬 성전의 일부로 선택된 각 문자 그대로의 돌은 성전의 최종 위치에 정확히 맞도록 미리 잘라내고, 모양을 만들고, 연마하는 등 "가져오기 전에 준비된 상태"였습니다. 따라서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돌()을 조립할 때가 되었을 때 망치나 끌이 필요 없었습니다. (열왕기상 6:1-7).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봉헌된 각 사람을 어떻게 준비하시고, 발전시키시고, 증명하시느지를 예표합니다.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은 문자 그대로 돌을 깎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 묘사되며,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미래의 사역을 위해 준비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.

베드로는 "여러분도 산 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."라고 덧붙입니다. (베드로전서 2:5-9). 하늘에 있는 이 영적

성전은 현재의 복음 시대가 끝날 무렵, '작은 무리'의 마지막 일원이 죽도록 충성할 때 곧 완성될 것입니다.
요한계시록 2:10

성전이 완공된 후 솔로몬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충실한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레위인, 음악가, 노래하는 자들이 "이 말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: 그분은 선하시다!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영원하도다!" 역대하 5:1-13

그런 다음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헌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. (역대하 6:12-42). 기도를 마치자 "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와 제물을 삼켰고", 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며 "여호와의 영광이 온 집에 가득했다"고 합니다. 이스라엘 온 백성은 불이 내려오고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성전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

찬양하며 "그는 선하시다!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!" 역대하 7:1-3

솔로몬의 성전은 "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"이 되어야 했습니다. (마가복음 11:17, 이사야 56:7). 이것은 메시아 시대에 영적 성전이 완성되고 영광을 받은 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할 것임을 예시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영적 성전 안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영적 성전에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. 바울은 곧 다가올 이 때를 언급하며 "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가 누구인지 계시하실 미래의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."라고 썼습니다. 로마서 8:19

그러면 모든 인류는 완성된 영적 성전인 "몸의 머리, 교회"인 그리스도 예수와 완성된 교회인 "신부" 반열을 통해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초대받게

됩니다. (요한계시록 22:17, 골로새서 1:18). "그리스도" 반을 통해 인류는 아버지께 다가갈 것이며,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기뻐할 것입니다. 그러면 "큰 기쁨의 좋은 소식"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것입니다. 누가복음 2:10